

‘건강한 광주’를 위한 주말·휴일 잠시멈춤

광주에서 3주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때 22명까지 치솟았던 일일 발생 확진자 수가 4일째 1-2명 수준을 유지하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방심하면 근절되지 않고 산발적인 발생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2면>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 주 광주 도심이 한 기할 정도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협조해 준 덕분에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주말과 휴일 등 외출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방심할 경우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선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총 173명으로 늘었다.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139명째다. 또 이날 새벽엔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치료를 받던 94세 여성이 숨졌다. 광주에선 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사망 사례다.

광주는 지난 1일 일일 확진자수가 22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지난 13일 1명, 14일 1명, 15일 1명, 16일(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과 3단계 상향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달려 시민들 방심하면 지역사회 고착화 우려도

2명 등 소강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광주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잘 지켜준 게 이 같은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 광주시민들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55만 여건으로, 지난 1일(94만 8000건)보다 42%나 감소했다. 이는 시민들이 외출 자제를 극도로 자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일요일이었던 지난 12일엔 총장로 등 광주 주요 도심은 시민의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한가했고, 교회 등 종교단체도 방역지침 준수 속에 예배를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소강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아직 소멸단계

는 아닌 만큼 이번 주말과 휴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방역전문가들도 “이번 주말과 휴일 시민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일상생활마저 제한하는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또 광주지역 집단 감염 시설내 에어컨과 손잡이 등에서 10일 넘게 살아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에어컨 가동시 창문열기 등 순환식 환기를 수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시민들께서 수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감염 확산 차단이라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칫 방심하면 수많은 n차 감염과 집단 감염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외출자제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팀 구성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연계

전남도가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민선 7기 내세운 새천년 비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연계해 광양항 스마트항만 구축, 도내 산업단지의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 특화단지로의 혁신,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프로젝트들의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남도 전담팀(T/F)’을 구성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2025년까지 국비 등 160조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의 분야와 전남도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공통점을 찾고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전남을 ‘한국판 뉴딜’의 모범지역으

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는데 적극 공감하면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이 가진 섬과 바다, 황금들녘, 하늘, 바람 등 풍부한 블루 자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해 전남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과 방향성과 핵심 사업이 일치한다는 의미다.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에 ‘해상풍력’, ‘RE100 전용 산단’,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이 핵심 현안으로 대거 포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향후 블루에너지-관광-바이

오 의약-미래 운송기기-농수산 생명산업-스마트 시티 등 블루 이코노미 6개 프로젝트를 국가 계획과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광양항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접목 로데르담형 ‘스마트 항만’ 구축 ▲여수국가산단 등 ‘산단 대개조사업’ 선정을 통한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 특화단지로의 육성 ▲K방역을 선도하기 위한 전남도내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고흥 중심 미래비행체 테스트베드 및 영광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이 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열어가는 ‘한국판 뉴딜’의 첫 시작을 전남도는 적극 환영한다”며 “‘한국판 뉴딜’과 ‘블루 이코노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의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잠룡’ 이재명, 날개 달다



‘엄지 척’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가 기자회견 이 지사는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사법적 족쇄에서 풀려남에 따라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대권 후보를 비롯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 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

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려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박상욱·이기태·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정확히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으며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폭행·폭언·부당지시...의심의 숨수 ▶6면
북스 - '기루전쟁' · '천년고찰...' ▶14·15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